

## 우즈베키스탄 면

구소련의 15개 공화국 중에서 1991년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인도, 미국, 파키스탄, 브라질에 이어 세계 면화생산 6대국이면서 면화수출에서는 미국, 인도, 호주, 브라질에 이어 5대국의 하나다. 이곳의 면화경작은 기원전 천 년 전부터 면화재배가 시작되었다는 러시아의 고고학적인 발굴조사 기록이 남아 있다.

1864년 미국 남북전쟁으로 면화값이 치솟자 당시의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면화를 재배시키면 되겠다는 판단 아래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6개국을 침공하여 면화만을 재배하도록 하였다.

중앙아시아의 면화재배 6개국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아제르바이잔의 6개국인데, 이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면화생산량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만이 아니라 이 지역은 북위 37-42도로서, 경작지로는 너무 북쪽에 있는 것 같지만, 한여름의 기온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면화 경작지와 비슷하다.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아랄(Aral) 해의 물을 관개사업으로 충당하여 면화생산에 이용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면화는 타시켄트 1호라는 중변수용 육지면이 주로 재배되며, 장섬유면도 상당량 수확되고 있다. 이 나라 면화의 평균 섬유장은 1 7/16 in 정도다. 이 나라 육지면의 특징은 코튼 볼이 잘 성숙되어 있고, 섬유가 굵으며 염색성도 좋다. 그리고 섬유의 강도가 좋아서 면사를 만들어도 강도가 좋다. 또한 섬유의 균제도가 우수하고, 단섬유 함유율이 적어 방적공정에서의 효율도 좋아 사절도 적으며 넵(nep)도 적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근래에는 일부 과도한 농약사용을 문제 삼기도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국가들 중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는 나라로 아직도 면화 재배지역, 생산목표, 판매가격, 노동력 투입문제, 구매문제 등 생산, 판매과정 전반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강하

게 남아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자금부족, 농업기계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금도 90%의 면화수확이 수작업으로 채집되며, 이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수십만 명의 어린학생들이 면화수확에 동원되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빈민국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농사에 동원되는 나라와 달리 이곳에서는 면화 수확기가 되면 학교는 문을 닫으며 불과 7세밖에 안된 어린이들도 학교선생의 인도하에 면화밭으로 동원되어 장시간 강제노역에 시달린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2008년부터 월마트, 테스코 (Tesco), H&M 등 유럽 각국의 대기업에서 이 나라 아동 노동문제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면화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원래 면화재배 적지로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긴 계절과 600 - 1200 mm 정도의 강우량이 필요한 반 건조지대가 최적지인데 이러한 조건과 맞아 떨어진 곳이 이곳 우즈베키스탄을 위시한 북위 37-42도 안에 있는 중앙아시아라고 할 수 있다. ♣(공석봉)

